

[목포권]

“행정 바꿀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목포시 ‘1인1시책’ 발굴

목포시가 직원 스스로가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을 전개하기 위해 ‘직원 1인 1시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목포시는 고유 업무중 불합리한 사항을 비롯해 과감히 폐지돼야 할 업무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

굴,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지난 11일 간 부회의에서 “목포시 직원들은 구태의연한 관행과 수동적인 업무처리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며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직원 1인 1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해경청 호남동에 임시청사 마련

원도심 활성화 기대… 옥암지구 신축부지 확보

다음 달 중순께 문을 열 목포지방해양경찰청이 목포시 호남동 KT 사옥에 임시청사를 개설한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본부장 김수현)는 “KT 사옥 2층을 지방해경청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KT측과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임시청사 입대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KT측이 내년도 임대 예산 확보때까지 무상 사용하고 월 임대료 600만원 등 과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임대기로 합의했다”면서 “조만간 사무실 설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또 “목포시에서도 지방해경청 신축부지로 옥암지구 5천 평을 삼학도 해경부지 등과 맞비꾸는 조건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임시청사와 신축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군산과 여수 등지에 설립을 검토했던 지방해경청이 목포에 설립되게 됐다.

한편 다음 달 개정할 지방해경청 근무인력은 2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목포=이상현기자 lsh@

아동극 뮤지컬 ‘마법의 날개’ 목포 공연

16일 오후 2·4시 문예회관

린다.

관람료는 5천원이며,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시설 어린이 500여명은 무료초청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연을 맡은 국단 ‘사다리’는 1988년 창단된 ‘꼬방꼬방’, ‘팔죽할멈과 호랑이’ 등 다양한 형식의 어린이 연극 공연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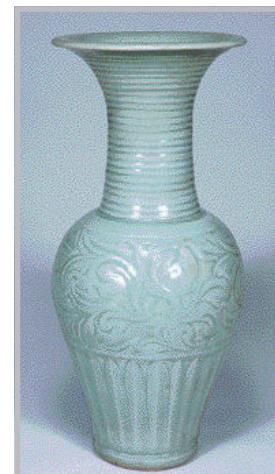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군 헌금 30주년 ‘도자교역’ 특별전

해양유물전시관 22일부터

목포시 국립 해양유물전시관(관장 김성범)은 오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국 수중고고학의 효시로 불리는 ‘신안선’ 발굴 30주년 기념 ‘신안선과 동아시아 도자교역’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신안선에서 출토된 원(元)대 청자음각모란문대화병(사진 왼쪽) 및 청자어울식화병 등 도자기를 비롯, 같은 시기의 중국 도자기, 일본출토 중국도자기, 고려 청자 등 230여 점의 유물과 자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선 발굴 30주년 ‘도자교역’ 특별전



흑산농협 퇴출… 상인피해 속출

20여명 납품대금 못받아

(47·목포)는 “농협을 믿고 새벽 잠을 설치며 과일을 납품했는데 퇴출 조치로

신안군 흑산농협 퇴출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흑산농협 마트에 과일, 육류, 채소류 등을 납품했다 갑작스런 퇴출조치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은 모두 20여 명에 피해액이 6천8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잡정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과일을 납품한 A모씨

1천100만 원에 이르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지에 놓여 있다”면서 “농협이 나서 하루빨리 영세 상인들의 돈을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흑산농협에 파견된 농협중앙회 한 관리인은 “실사가 끝나면 농립부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건물을 처분한 다음에 납품 대금 지급

이 이뤄 질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물품 대금을 다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

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강제 퇴출

됐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한편 흑산농협은 지난 달 28일 농립부

가 사업을 정지시키고 농립부 소속 관리

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20명은 과연, 법

인 소멸 절차를 밟고 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흑산농협은

과다대출과 신용사업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해부

터 인근 조합과의 합병 등을 통한 재기